

어느 노랫말처럼 '그리운 남쪽바다' 여수를 찾았다. 도시 전체를 휘감고 있는 비릿한 바닷내음이 투박한 말씨와 썩 잘 어울린다. 16년의 역사를 꿰고 있는 여수지부는 전에 비해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투박하고 솔직한 마음들이 변함없이 어우러져 있다.

여수는 프랑스 남부에 자리잡은 모나코를 연상케 한다. 바다를 코 앞에 두고 야트막한 아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모나코와 다른 점은 시야를 간섭하지 않는 수평선 대신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다는 것이다. 탁트인 광경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섬들을 바라보면 섬들이 오히려 물을 감싸고 있는 듯한 푸근함을 느끼게 된다.

과자조합이 모태가 돼 80년 지부결성

여수는 대표적인 항구도시 중의 하나다. 지금은 '지난날의 영화'로 남아 있지만 여수는 일제 치하에서는 내로라하는 항구도시였다. 물자가 풍부했고 교역량도 많았다.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였다.

여수지부가 결성된 것은 80년. 17개의 업소가 모여서 꾸리고 있던 과자조합이 모태가 됐다. 현재 70여 개의 제과점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이 숫자는 여수 시내 전체 제과점수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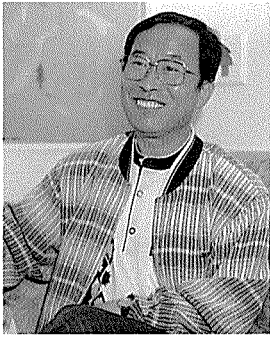
"지부가 만들어지기 전 과자조합의 회원들은 친형제처럼 가까웠습니다. 적은 인원이다 보니 서로의 사정에 환했고요. 누구나 동경하는 업종을 꾸리고 있다는 자부심도 컸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탕이 돼 현재의 여수지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4대부터 시작하여 8대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지부를 이끌고 있는 장형호 지부장은 과거와 현재를 이으며 여수지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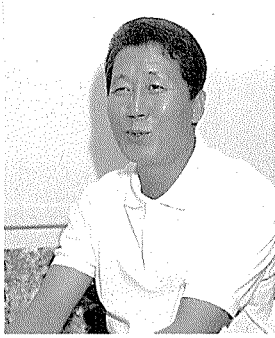
장형호 지부장

여수지부 탐처럼 높이, 길라잡이가





정해룡 부지부장



최봉찬 부지부장



최문필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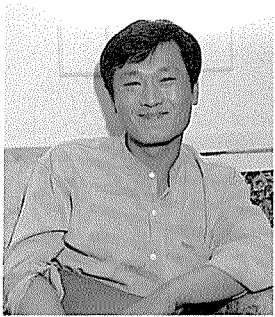
이병남 감사



박종연 총무



이동훈 이사



김두천 이사



강형선 자율지도위원

역사를 더듬었다.

타 지부가 그랬듯이 여수지부도 초기에는 우여곡절을 여러번 겪었다. '한 마음'으로 뭉쳐 시작했지만 사적인 모임에서 공식적인 모임으로의 변신은 단순한 자리아동이 아니었다. 공인된 모임으로서의 책임이 중요하게 대두됐다.

80년대 제과점수가 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자 여수지부는 신규업소의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부심했다. 그 결과, 관내 모든 제과점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지부는 기술 세미나 및 친목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욕을 북돋웠다. 최봉찬 부지부장은 "회원들과 지부의 열의가 어우러져 꾸준히 제품개발 및 보급에 나선 결과, 여수의 제품수준은 타지방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여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남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순천, 여천 등 인근 지부와의 기술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일치, 가격경쟁이 아닌 제품경쟁으로

각종 행사의 참여율을 언급하지 않고도 여수지부의 단합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그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가격경쟁이 아닌 제품의 질을 통한 경쟁에 모든 회원이 뜻을 모은 결과다.

준양산 가맹점이 들어선다면 '가격일치'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번번이 실패하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에 대해 정해룡 부지부장은 "준양산 업체의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제품 공급에 무리가 따르고 따라서 제품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병남 감사는 "지방의 상황, 즉 '즉석' 개념에 고정돼 있는 지방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하지 않고 매체에 소개된 성공한 사례를 무작정 좇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수지부는 지부사무실 마련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16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사무실이 없다는 사실이 사뭇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성급하게 서둘지는 않을 방침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무실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바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 지출이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수지부는 그릇을 먼저 준비하기보단 그릇에 채울 내용을 먼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미나 활성화 등 형식보다는 내용으로

이런 자세는 외형적인 사무실보다는 2년 전에 자체 세미나실을 먼저 개설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품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던 기술세미나가 예전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여수지부는 이의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박종연 총무는 "제과점수가 급격히 증가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에 너무 집착, 신제품 개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젊은 기술인들의 모임인 '동백회'가 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미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 앞바다에는 돌산섬이 있다. 돌산대교가 이 섬을 육지와 연결한다. 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은 '돌산(突山) 대교'의 이름에 걸맞게 하늘 높이 솟아있어 어디에서든 쉽게 눈에 띈다. 섬들이 감싸고 있는 여수의 형세처럼 여수지부는 회원들의 테두리 안에서 탐을 쌓고 있다. 어디서든 눈에 잘 띄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높게... [인]

(글/ 손인수)